

# 근대한국 개혁운동 다시 읽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종교와 공공성 총서' 제3권 발간

20세기 초 개혁운동 리드한 천도교에서 사용한 '개벽' 개념 고찰

원광대학교(총장 박명수) 원불교사상연구원이 발간하는 '종교와 공공성 총서' 제3권이 나왔다.

2018년 '근대한국 개혁종교를 공공하다'와 2019년 '근대한국 개혁사상을 실천하다'에 이어 세 번째 발간된 총서 '근대한국 개혁운동을 다시 읽다'는 대학중점연구소 연구과제인 '근대명명 수용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 1단계 3년차 연구를 총괄리했다.

특히 20세기 초 개혁운동을 리드한 천도교에서 실제 사용한 '인문개벽'과 '사회개벽' 개념을 '인문개벽운동'과 '사회개벽운동' 등 두 분야로 나눠 근대 한국의 개혁운동을 고찰했다.

제1부 '인문개벽운동'에서는 동학의 생명평화사상과 최시형의 생태철학, 강증산의 상상사상과 소태산의 언어관, 홍익인간의 정치이념을 다루고, 제2부 '사회개벽운동'은 천도교의 3·1 독립운동과 시민적 공공성, 원불교 '건국론'을 비롯한 계몽운동과 평화운동, 일제강점기 경제지립운동을 다뤘으며, 제1권과 제2권이 개



백사상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3권은 개혁운동의 '생명평화사상'에 주목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했다.

/익산=장영민 기자

또한, 이번 총서는 100년 전 개혁운동이 오늘 날 어떻게 계승되고, 현대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신중히 탐색한 가운데 10편의 글을 읽고 나면 요즘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공의식과 시민의식이 이미 개혁운동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점에서 100년 전의 개혁운동은 전통과 근대를 넘어 현대와 미래를 내다본 한국인의 통찰과 지혜의 정수임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서 간행으로 원불교사상연구원 중점연구소 과제는 2단계로 접어들었으며,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사상사적 작업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인간과 국가의 틀 안에 갇혀 있던 '근대적 인문학'이 아닌 지구와 만물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지구적 인문학'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은 서구이론의 일방적인 수입이나 소개 일변도의 '유행성 인문학'이 아닌 동서고금의 사상자원을 융합하고 활용하여 디자인한 '차생적 인문학'이라는 의미에서 2단계의 작업은 100년 전 개혁파가 서구 문명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조선 유학을 넘어서는 '개벽학'을 창조한 것과 같이 '다시개벽'에 도전할 계획이다.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지난 10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펼쳐진 '사랑의 헌혈운동'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헌혈자가 감소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 헌혈에 동참하게 됐으며, 특히 센터 내 입주 기관인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는 등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서 이뤄졌다.

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헌혈차량 지원으로 실시됐으며, 헌혈자들은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이번 헌혈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다음에도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이 헌혈 수급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윤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화훼농가들이 못 판매와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 동참했으며, 센터 내 입주기업에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하는 착한임대료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출판교육 제공 · 인력 유치

출협-성균관대, 협약 체결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성균관대가 대학생 출판콘텐츠 아카데미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출협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출협 4층 대강당에서 성대 국어국문학과 및 글로벌문화콘텐츠 연계전공과 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출판콘텐츠 아카데미'는 출판콘텐츠 관련 교육을 대학생에게 제공해 출판계 취업을 장려하고, 출판 및 독서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출판에 관심있는 성대 학생들은 출판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출판계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성대 학생들에게 출판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돼 무척 기쁘다. 이를 계기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유입돼 출판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규 성대 국어국문학과장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시의적절한 출판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돼 고무적이다. 양 기관의 유대·협력 관계도 한층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구체적인 아카데미 시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 NCKK "넓은 정치 버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국민 편에서 총선 임해야"

각 후보자들 · 정당들 향해 요구

"공정 · 평등 · 생태 · 평화국회로"

유권자들 향해 "적극한 표 행사"

새로운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자"

개신교 양대 교단 연합체 중 한 곳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K)가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지난 10일 각 후보와 정당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해줄 것을 독려했다.

NCKK는 이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당당한 주권의 행사'라는 제목으로 정의평화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현 20대 국회는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NCKK는 후보자들과 각 정당을 향해 "비난과 비방, 당선만을 목표로 한 알뜰한 폼수부리기 등 넓은 정치를 벗어 버리고 진정 국민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총선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1대 국회가 '공정국회', '평등국회', '생태국회', '평화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NCKK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국회', 개인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만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국회'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4399만명의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함께 싸우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의 가치와 가능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넓은 정치를 벗어 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 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신기남 재위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자로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사진)를 재위촉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밝혔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



재단 부장 ▲이현주 대전대학교 겸임교수 ▲정운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을 다루게 되며 이를 감안해 도서관계, 4차 산업, 인문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